

07
2021

재외동포의



특집 _ 재외동포 10명 중 9명 “자녀에게도 한국어·문화 가르칠 것”
기획 _ 7월1일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중요사업·가족방문 입국시 격리면제
화제 _ 탄소중립,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



재외선거 참여는 당연한 주권행사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시작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재외선거제도 도입 이후 영구명부제 시행, 우편·인터넷을 통한 선거인 등록 신청 등의 제도적 보안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국내외 정치·사회적 환경을 감안하여 재외선거권의 보다 실질적인 보장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전체 117개국 176개 공관 중 55개국 91개 공관의 선거사무가 중지됐고, 36개 공관에서는 투표기간이 단축됐습니다. 이로 인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재외유권자가 등록 선거인수의 50.7%에 달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으로 참정권이 제한되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례없는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의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최적의 선거관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외교부 등 재외선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각 국가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나갔습니다.

비록 국가 상황에 따라 일부 공관에서는 선거사무가 중지되었지만, 투표가 가능한 공관에는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공관에는 재외선거 도입 이후 최초로 공관개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재외투표 실시 공관(62개국 85개 공관)의 선거인수 대비 투표율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6.8%p 상승한 48.2%를 기록하였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재외국민 여러분의 주권자로서의 참여 의지가 빛을 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도 코로나19와 함께 치러지리라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였던 지난 국회의원선거 관리 경험을 토대로 유권자가 안심하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을 조성하고 선거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던 선거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나, 2회 이상 계속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선거인은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 민족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 자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여객이다” 하였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대한 재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자 주권행사의 당연한 주체임을 명심하고 선거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





- 02 권두언 재외선거 참여는 당연한 주권행사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04 특집 재외동포 10명 중 9명 “자녀에게도 한국어·문화 가르칠 것”
- 06 기획 7월 1일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중요사업·가족방문 입국시 격리면제
- 08 화제 탄소중립,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
- 10 글로벌 코리안 아르헨 빈민촌에 희망 심는 ‘닝마주이 수녀’ 이세실리아
 남아공 32년 무역, 정해권 韓商 “아프리카는 틈새시장”
 상하이거래소 상장 추진, 中조선족 남기학 “과학기술로 승부”
- 12 한민족 공감 중국 연변 조선족 인구 급감… 자치주 내 비중 30% 턱걸이
- 14 유공 동포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연구한 재일 사학자 강덕상씨
- 15 주목! 차세대 미 한인2세, 미네소타 최대 성소수자 인권단체 사무총장 맡아
- 16 동포소식 “필리핀 세부 한인사회 코로나로 초토화… 살기 위해 안간힘” 외
- 19 동포 캘린더 재미한국학교協, ‘제1회 코리안 스펠링 비’ 개최 외
- 20 지구촌 통신원 가나 한인 차세대 요람 ‘개교 40년’ 전통의 한글학교
- 21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 세계시민으로서의 한민족 공동체 발전 방안 제시 외
- 24 유관단체 소식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서포터즈 ‘WeKO 3기’ 모집 외
- 25 기고문 AP 한국어 등재를 위해, 모두 함께합시다!
 류 모니카 M.D 중앙방사선학 전문의,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 26 재단공지 ‘2021 세계한인 청소년 더 위대한 도전’ 경연대회 공모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10명 중 9명 “자녀에게도 한국어·문화 가르칠 것”

재외동포재단,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차세대 실태 조사 발표

아카데미 수상작 ‘미나리’에서는 미국에 온 외할머니 순재(윤여정 분)가 이곳에서 나고 자란 손주들을 돌보면서 미나리 씨앗을 심는 법이나 카드놀이 등 한국 문화와 언어 등을 가르쳐 주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이 영화에서처럼 자신도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자녀에게도 한국어와 우리 문화 등을 가르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재외동포의 비율이 역대 최고인 90%를 넘어섰다.

재외동포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 조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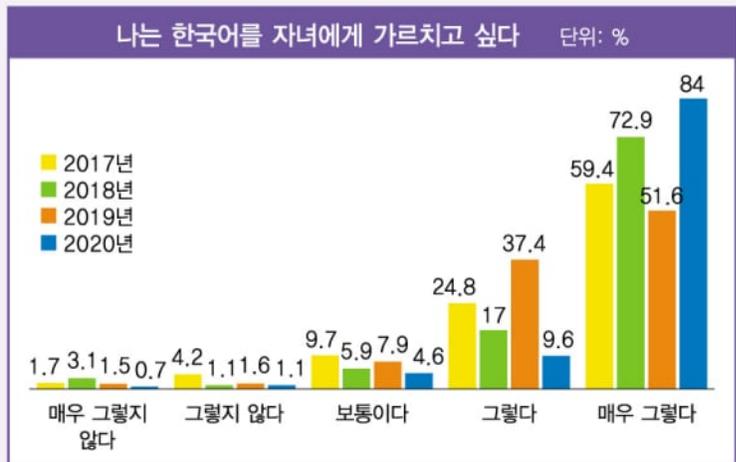
90%이상이 한민족이라고 자각, 차세대 정체성은 약화

지난해 말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 오세아니아 등에 사는 재외동포 9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비율은 93.9%로, 조사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은 전년 대비 27.9%포인트 오른 87%에 이르렀다.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아시아·중동과 일본으로, 응답자 모두 가능하다고 답했다. 동남아시아(97.7%), 북미(96.1%)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어 구사 능력은 세대가 내려갈수록 떨어지는 성향을 보였다. 이민 1세대의 경우 97.7%에 달했으나, 2세대와 3세대에 들어서는 각각 89.8%, 79.4%로 떨어졌다. 가장 젊은 세대인 4세대는 55.5%에 그쳤다.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도 전년 대비 4.6%포인트 오르며 역



대 최고치인 93.6%(매우 그렇다 84.0%·그렇다 9.6%)를 기록했다.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남미(100.0%), 아시아·중동(95.6%), 중국(95.2%), 북미(93.6%) 등의 순이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90%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민족의 역사·문화를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도 91.7%(매우 그렇다 68.5%·그렇다 23.2%)로 3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이밖에 ‘자신이 한민족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91.7%(매우 그렇다 80.8%·그렇다 10.9%)에 이르렀다. 이는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긴 수치다. 다만 ‘한민족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의사가 있다’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은 60.8%로 전년 대비 17.3%포인트 감소하며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60%대로 내려앉았다.

일본·동남아·중국 등서 정체성 지수 높아

일본·동남아·중국 지역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가 다른 대륙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

중국지역 동포의 경우, 한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는 동일한 역사 및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인회 등의 활동 지원,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일본지역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 또한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민족 문화 의식과 한국어 습관 등을 묻는 '나는 한민족으로서 자부심과 긍지가 있다'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그럴려고 노력한다' '한민족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산다' 등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낮은 지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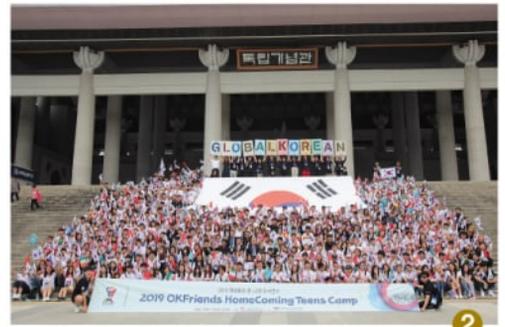
보고서는 재일동포의 일본 현지화가 상대적으로 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역사적 특수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일본과의 역사문화를 포함한 각종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남아시아의 한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한글과 한국어·한국문화 학습기회와 교류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한글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한글 강사 파견, 동남아시아 지역 한글 교사 양성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북미지역은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의식, 언어, 역사, 문화 등의 지수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한 인사회에 대한 재외동포재단의 지속적인 교류와 지원이 필수적이며, 언어적 차원에서 개인의 한국어 학습 의지를 고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남미·유럽·러시아·대양주 등의 동포사회를 위해서는 정체성 함양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 해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특별히 지리적 제약을 극복 할 수 있는 역사·문화 체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재외동포재단이 정책개발을 위해 정확한 수요 파악이 우선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통계 자료 확보를 위해 지역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밝혔다. 종합적으로는 교육·문화 중심의 정책과



2



3

사업을 뒷받침하고 재외동포 교유의 장 기능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윤지경 재정성과연구원 연구위원은 "K-팝 등의 영향으로 문화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은 기류를 이어가기 위해서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의미 있는 변화 중 하나는 재외동포 가정에서 한국어나 한민족 역사 등을 가르치고 싶다는 응답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관련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1.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차세대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에 앞장서는 한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2.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초청 모국연수에 참가한 차세대들
3. 재일한국청년상공인연합회는 모국역사 배우기의 하나로 회원들과 서울을 찾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를 고문했던 현장을 둘러보았다.

7월 1일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중요사업·가족방문 입국시 격리면제

학술·인도적 목적때도 격리면제... 변이 유행국가발 입국자 제외

7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했다라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에는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됐다.

정부는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6월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입국 절차 완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입국 전후 검사 3회,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우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안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실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이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격리면제 기준과 방법을 설명하면서 "혹시나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 벌금과 출국 조치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시에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1. 정부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완료한 자에 대해서는 중요 목적 등과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 조치를 면제하고 있다.
2.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헝가리에서 온 해외 입국자들이 해외예방접종 격리면제자 스티커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자 스티커가 붙은 여권을 들어보이고 있다.
3. 한국행 특별기 탑승을 위해 인도 수도 뉴델리 인디라간디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는 현지 한인.
4. 코로나19 백신을 외국에서 맞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된 7월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방역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미국 주재 한국 공관과 한인사회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현지 동포들의 문의가 각 영사관에 폭주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오랫동안 한국의 직계 가족을 만나지 못한 동포와 재외국민, 유학생들이 백신을 맞았다면 격리를 안 해도 된다는 소식에 너도나도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미주 최대의 한인 거주지 남부 캘리포니아를 관할하는 LA 총영사관에는 하루에 5천 통이 넘는 전화가 폭주하며 사실상 업무가 마비됐다. 각 공관에서는 민원 수요 급증에 대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갔다 온 후 3주간 시설격리를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희망자가 폭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일본은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이 6월 중순 기준 5%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서 눈에 띄는 격리 면제 입국 문의가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 한인 커뮤니티에는 자가격리 면제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해 한국 방문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가득했다. 격리를 즉각 면제하고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한인단체의 공개 요구도 나왔다.

최윤희 뉴욕한인학부모협회 회장은 성명을 내 “격리 면제를 위한 가족 방문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미주 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미흡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공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지침에 담기지 않은 세부적인 질문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문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관은 이에 따라 사례별 문답을 공지하는 등 사전안내를 할 계획이다. **▶**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남아공과 브라질 이외 11개 국가는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마치고 입국하는 경우라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이 아닌 '변이발생국 기준'에 따른 엄격한 심사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가 가능하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정부는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국내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국가별 방역상황, 국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격리 면제에 해외 한인사회 '들쭉'

중국 등 아시아권 공관과 파리, 베를린 등 유럽권 공관에도 한국 정부 발표 후 전화와 이메일,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한인 사회는 “가뭇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탄소중립,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

2050 탄소중립위 출범... 문대통령 “주춧돌 돼달라”

그린 뉴딜의 중심이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중 그린 뉴딜의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하고 그린 뉴딜에 탄소중립을 반영해 외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이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한 만큼 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그린 뉴딜에 탄소중립 반영해 외연 확대

지난해 발표된 그린 뉴딜에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이 과제로 포함됐다. 여기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이번에 추가됐다.

정부는 새 과제의 일환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질서 수립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 탄소 감축 체제를 구축하고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해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이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추진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그린뉴딜 사업 또한 확대·보강해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할 예정이다. 건물·도시 대상 기존 사업들을 보강하고, 도시·농촌·해안지역 녹색 생태계 회복 및 기후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를 위해 그린스마트 스쿨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2024년까지 조기 완료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그린 뉴딜에 투입될 2022년 예산(국비)을 기존 10조3천억 원에서 12조3천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추진... 입법과제로 추가

정부는 이번 '한국판 뉴딜 2.0' 과업의 5대 과제 중 하나로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구체적 추진의 방향은 지난해 마련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를 '탄소중립' 구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마련하고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



2



3

는 동시에 국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홍보에 나선다. 먼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 및 배출권거래제 등 관리제도를 정비한 후, 기업이 탄소량 증빙에 드는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계가 효율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해 오염물 배출이 없는 산단 조성을 추진한다. 그리고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흡수원 기능 측정·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2.0'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저탄소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외 산업 직군 근로자들에게 신산업분야 직무 전환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유지를 유도하고, 전직 준비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뉴딜 범위 확대에 맞춰 10대 입법(31개 법률) 과제에서 12대 입법(38개 법률) 과제로 뉴딜 입법도 확대한다. 이중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선제적 사업 구조 개편을 위한 입법이 과제로 추가돼 기업활력법 및 사업전환법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은 선도국가 도약 기회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전환의 컨트롤타워를 맡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출범식에는 문 대통령 외에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위원들이 함께했다. 위원회에는 두 공동위원장 외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 당연직 정부위원 18명과 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에서 위촉된 민간위원 77명 등 모두 97명이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출범식 인사말에서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산업계와 함께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기후위기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로 삼는 모범을 대한민국이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의 원년이자 우



4

리나라에서 P4G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뜻깊은 해"라며 "위원회가 탄소중립 달성의 굳건한 주춧돌이 되고 튼튼한 대들보 같은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경제·산업·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민간위원들 역시 운영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에 관한 소통에 앞장설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

1.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윤순진 민간위원장인 쪽 다섯번째) 등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6월 2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회적 협약식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업계·공공기관·시민단체 참석자들이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 김부겸 총리가 5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순진 민간위원장
4.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회원들이 6월 3일 'UN 세계 자전거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탄소중립 실천 자전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아르헨 빈민촌에 희망 심는 '닝마주이 수녀' 이세실리아 20여 년 동안 빈민촌서 생활하며 '닝마주이 협동조합' 조직

남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차로 30분쯤 떨어진 킬메스에 '비아 이타티' (Villa Itati)라는 이름의 빈민촌이 있다. 전기와 수도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현 지인들도 출입을 꺼리는 이 가난하고 복잡한 동네에서 한인 수녀 한 명이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00년 이곳에 온 이세실리아(65) 수녀를 현지 언론은 '빈민촌 수녀', '닝마주이 수녀'라고 부른다. 이 수녀는 서울서 태어난 후 1976년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건너왔다. 가톨릭 가정에서 자란 이 수녀는 1978년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에 입회하며 종교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0년 비아 이타티로 왔을 때 주민들 상당수는 폐지와 고물을 주워 팔아 그날그날 식량을 마련하는 처지였다. 그 무렵 아르헨티나는 최악의 경제위기로 치달는 중이었고, 고물상들마저 잇따라 문을 닫자 닝마주이 주민들의 생계도 막막해졌다.

이 수녀는 주민들과 매주 성당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논의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비아 이타티 닝마주이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주워온 폐지나 유리, 플라스틱 등을 사들인 후 재활용할 수 있게 가공해서 판다. 거리에서 폐지 등을 주워오는 사람들과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100~110가구가량이 조합의 일원이다. 일자리도 해결할 뿐만아니라 공부방을 운영해 학생들의 학업도 돕는다. 놀이방에서 아이들도 돌보고, 끼니 해결이 쉽지 않은 주민들에게 음식도 제공한다.

"수레를 끌고 종이를 줍던 일곱 살 꼬마가 이젠 20대 청년이 되어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협동조합 초반부터 함께 했던 조합장의 큰딸은 의대 졸업반이 됐죠. 많은 작은 사람들이, 작은 장소에서, 작은 일을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남아공 32년 무역, 정해권 韓商 "아프리카는 틈새시장" 발전설비 자재 공급, "높은 제품력·추진력이 한국의 강점"

"아프리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지만 대기업이 아닌 이상 진입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죠. 틈새시장 공략이 필요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32년째 무역업에 종사하는 정해권(68) 우리코퍼레이션 대표는 오랫동안 사업을 이어온 비결로 "큰 주문은 없어도 꾸준한 수요가 있는 게 대박이라고 믿어온 것"이라고 말한다.

정 대표는 발전소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공급으로 매년 100~150만 달러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근 국가인 마다가스카르 광산 인근에 세워진 화력발전소에 부품을 대고 있다. 그는 "건설 단계에서부터 자재를 공급해 고정 거래처로 인정받았다"며 "발전설비는 한 번 들어서면 영구적으로 운영되므로 안정적 거래가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동아대 전자공학과를 나와 대우중공업(현 두산인프라코어)에 입사한 그는 가나에 디젤기관차 차량 12대 납부를 위해 1985년 아프리카에 첫발을 디뎠다. 당시 가나는 도시에서조차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을 정도로 낙후했지만 성장 가능성을 본 그는 앞으로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주저하지 않고 사표를 냈다. 우선 아프리카를 배우려고 가나의 현지 무역회사에 들어가 4년을 다닌 뒤 1989년 독립해 남아공에 회사를 차렸다.

그는 남아공에서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만델라 전 대통령의 출소와 민주화 바람, 흑인 우월주의 등장, 경제 디플트 등을 겪었다. 변화의 바람 속에서 사업이 위기에 몰린 적도 있고 총을 든 무장 강도를 두 번이나 만나고도 목숨을 건졌다.

남아공에서 주요 비즈니스는 백인, 유대계, 인도계가 다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그는 사업 기회가 있다며 "품질 좋은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고,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보이는 한국인의 기질 덕분에 호감도가 높다"고 소개했다.



상하이거래소 상장 추진, 中조선족 남기학 “과학기술로 승부” 광학기술 특허만 120개… ‘2020 중국 우수 발명 성과상’ 수상

중국 조선족 기업인 남기학(60) 예지아광학기술그룹 회장은 내년 초 중국의 나스닥으로 불리는 상하이거래소 과학혁신판(커창반)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중국 광동성 선전시와 둥관시에서 광학과 실리콘 회사인 '광학전자기술유한공사'를 비롯하여, 게임기 제조사인 '전자기술유한공사' 등 10개 기업을 운영한다.

중국 주식 시장에서 커창반 상장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정한 매출액을 올려야 가능하다고 남 회장은 설명했다. 4월 말까지 커창반에 상장된 기업은 265개로 집계됐다.

매출액 1억 달러의 예지아 그룹은 중국의 다른 기업과는 달리 과학기술로 경쟁했다. 지난해 '중국 과학 혁신 우수 발명 성과상'을 수상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 발명품은 휴대전화와 카메라, TV 등 전자제품과 차량에 들어가는 광학렌즈로, 국내 삼성과 LG, 일본 소니 등 세계 5대 전자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이 회사의 TV백 라이트 광학 렌즈는 세계 점유율 1위다.

예지아 광학기술그룹은 그동안 광학기술 관련 특허 120여 개, 발명 특허 2개를 냈다. 최근 발명 특허 2개를 받았고, 현재 신청 중인 특허만 해도 20여 개에 달한다. 예지아 그룹에는 일본과 한국 출신 고급 엔지니어가 다수 근무하고 있다.

그는 경기 이천시 고향인 아버지와 함경북도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허베이성에 있는 연산대 자동제어학과를 졸업한 후 지시대학에서 5년간 강사로 일하다 선전시의 한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 스카우트돼 7년 간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2001년 '예지아정밀플라스틱'을 창업해 20년 만에 10개 회사를 거느린 그룹을 일궜다.

남 회장은 광동성 조선민족연합회, 한중기업연의회 등 조선족 단체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선족 행사 등에 후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창**



중국 옌벤 조선족 인구 급감... 자치주 내 비중 30% 턱걸이

10년 전보다 18.74% 감소... 중국 정부, '개별민족보다 중화민족' 강조



중국 유일의 조선족자치주(州)인 지린성 옌벤 내 조선족 인구 비율이 30%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옌벤조선족자치주 위챗(중국어판 카카오톡) 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시한 7차 인구 센서스 결과 자치주 내 조선족 인구는 전체의 30.77%인 59만7천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 6차 인구센서스 당시보다 13만7천여 명(18.74%)이 나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옌벤의 나머지 인구는 한족이 65.79%, 기타 민족이 3.45%로 한족이 다수를 차지했다. 옌벤의 총인구는 194만1천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28만1천여 명(12.6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의 중국 내 분포는 베이징(北京) 등 수도권에 10만명, 칭다오 등 산둥성 25만명, 상하이 5만명, 광둥성 5만명 등 동북 3성 이외 지역에 50만 명이 산다. 해외로도 대거 이주해 한국에는 귀화자를 포함해 80만명, 일본에 10만명, 미국과 유럽 등 기타 지역에 5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해외·내륙도시로 이전이 감소 요인

자치주는 중국 내 소수민족 다수 거주지역의 행정단위로, 소수민족의 자치관 할권이 인정된다. 조선족자치주 성립 초기였던 1953년 자치주 내 조선족 비중은 70.5%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에는 그 절반인 35.6%까지 떨어졌고, 이번에는 30%에 겨우 턱걸이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조선족 인구 감소는 상당 부분 한국 및 중국 동남부 지역 등 외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데 따른 것이며, 출산율 하락 등도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조선족 사회에서는 '소수민족 비중이 30%를 밑돌면 자치주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식 규정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네이멍구 자치구의 몽고족 비중은 17.66%지만 자치구 폐지 논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1993년 발표한 조례에서 자치주보다 작은 소수민족 자치구역인 민족향(鄉)과 관련해 "소수민족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인 경우 민족향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실사 제도적으로 자치주 지위가 유지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속도를 보면 자치주로서 실질적 의미·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1~2. 조선족의 전통 거주지인 중국 동북 3성의 조선족학교는 대도시 또는 외국으로의 이주로 학생 수가 대폭 줄어 주변이 한족학교로 통합되고 있다.
- 3. 중국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주도인 옌지의 한 건물 전체를 뒤덮은 한글 간판들.
- 4. 옌벤조선족자치주 옌벤박물관에 전시된 '조선족자치주 성립 축하' 묘사 작품
- 5. 중국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옌지의 조선족민속원 인근.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최근 중국 내에서는 개별 민족의 자치보다 중화 민족주의와 국가 통합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소수민족 거주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일선 학교에 중국어·도덕과법치·역사 과목 등의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국가 통일편찬 서적으로 바꾸고 수업도 중국 표준어로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네이멍구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협) 기간 네이멍구 자치구 대표단을 만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했다. 또 왕양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지난 4월 네이멍구를 방문해 "중화문화에 대한 공동체 의식 강화를 토대로 여러 민족문화의 계승, 보호·혁신, 융합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우선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조선족학교도 78% 감소 민족교육도 위기

중국 동북3성에서 조선족 공동화 현상으로 조선족학교가 20년 만에 무려 78% 줄면서 민족교육이 위기에 처해졌다. 라오닝성 조선족 기관지인 라오닝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천년대 초까지만 해도 조선족 정규 학교는 1천여 개를 웃돌았지만 인구 감소와 타지역·국가 이주 탓에 학생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현재 225개만 남았다.

옌벤조선족자치주가 있는 지린성에는 초등학교 50개·중학교

34개·고등학교 18개, 라오닝성에는 초등학교 25개·중학교 21개·고등학교 11개, 헤이룽장성에는 초등학교 29개·중학교 18개·고등학교 17개 만이 각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내몽골자치구 울란호트와 허베이성 친황다오에 각각 1개의 조선족학교가 있다.

중국 내 조선족교육의 기원은 1906년 옌벤 룡정(龍井)에 세워진 서전서숙(瑞甸書塾)이다. 이곳을 시작으로 동북3성에 조선족이 자발적으로 세운 학교들이 여기저기 생겨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후에는 소수민족 정책에 따라 초중고와 대학교까지 민족교육 체계가 정립돼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개혁개방 정책으로 조선족이 전통적 집거지를 떠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공동화가 나타났다.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조선족학교가 인근 학교로 통합되거나 폐교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옌벤조선족자치주의 대표적 학생신문인 조선족중학생보에 따르면 1990년대 초만 해도 1천500여 조선족 중·고등학교에 40만 명에 달하던 학생이 2015년 기준으로 2만3천여 명으로 줄었다.

문민 재한조선족교사협회장은 "전통적으로 조선족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조선족이고 교육도 조선족자치주에서 만든 교재를 활용해왔으나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다 보니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들조차도 교육환경이 더 나은 한족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창**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연구한 재일 사학자 강덕상씨

재일한인역사자료관 초대 관장으로 역사 정립에도 앞장서

3·1운동과 여운형 연구, 간토(關東)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 등을 연구한 민족주의 재일사학자 강덕상(姜徳相)씨가 6월 12일 오전 9시30분께 일본 도쿄 요요기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과 제자인 이규수 히토쓰바시(一橋)대 교수 등 지인들이 전했다. 향년 90세.

딸 강수령 씨는 “아버지는 5년쯤 전부터 악성림프종으로 투병하셨다”며 “오늘 오전 6시30분쯤 의식을 잃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의사의 사망선고 시각은 오전 9시30분쯤이었다”고 말했다.

1931년(호적상 1932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먼저 일본으로 건너간 아버지(강영원)를 따라 1934년 12월에 어머니(방귀달)와 함께 일본 도쿄로 이주했다.

와세다대 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메이지대 대학원 문학연구과에서 동양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7년부터 히토쓰바시(一橋)대에서 가르쳤고, 1989년 이 대학 사회학부 교수가 되면서 ‘재일동포 1호 일본 국립대 교수’로 화제가 됐다. 1995년 정년퇴직 후 시가현립대 인간문화학부 교수를 거쳐 명예교수가 됐고, 2005년 민단산하 재일한인역사자료관 초대 관장으로 취임해 재일동포 역사를 정립하고 차세대에 널리 알리는데도 앞장섰다. 2017년 건강상의 이유로 이성시 와세다대 교수에게 관장직을 넘겼다.

저서로는 ‘간토대지진’ (일본어·1975), ‘조선독립운동의 군상-계몽운동에서 3·1운동으로’ (일본어·1984), ‘간토대지진·학살의 기억’ (일본어·2003), 국역은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2005), ‘여운형평전1 조선 3·1독립운동’ (일본어·2002), ‘여운형평전2 상하이임시정부’ (일본어·2005) 등이 있다. 지난 4월 일본에서 평전 ‘시무(時務)의 연구자 강덕상-재일교포로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생각한다’가 나왔다.



재일한인역사자료관 초대 관장이었던 강덕상 씨가 재일시절 도쿄 미나토구 소재 자료관에 전시된 조선인 학살 관련 사진들을 가리키고 있다.

1964년 ‘관동대지진과 조선인’이라는 자료집을 시작으로 관련 논문을 30편 이상 발표해 1990년대 일본 교과서에 간토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 내용을 포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2013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58년 학살을 부정하는 논문이 발표된 것을 보고 사학도로서 울분을 느꼈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여운형과 3·1운동 관련 연구 등 한국근현대사와 조선독립운동을 연구했고, 일본은 미국에 진 것이 아니라 조선 독립운동에 졌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토대지진 직후 조선인 학살은 국가권력이 주범이고, 민중이 종범인 민족적 대범죄라고 주장했다. 부인 문양자씨와 사이에 1남2녀(강수령, 강미령, 강우성)를 뒀다. 유골은 6월 20일 고별식 후에 도쿄의 절(國平寺)에 모셨다. **한**

미 한인2세, 미네소타 최대 성소수자 인권단체 사무총장 맡아 애나 민, '아웃프런트 미네소타' 임시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미국의 성소수자(LGBTQ) 인권단체가 리더십 전환기에 조직을 이끌 새 리더로 한인 2세를 내세웠다. 미네소타주 최대 LGBTQ 권리 옹호단체 '아웃프런트 미네소타'(OutFront Minnesota)는 오랜 기간 비영리조직에서 활동해온 애나 민(34)을 임시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미네소타 유력일간지 스타트리뷴이 최근 보도했다.

LGBTQ는 성소수자 중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혹은 성 정체성에 대해 갈등하는 사람을 합하여 부르는 단어다. 이 매체는 민 씨가 미니애폴리스 태생으로 한국에서 이민한 할머니 슬하에 자랐다면, 미국 인권운동이 인종·젠더·계급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아웃프런트'에 참신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여 년간 사무총장을 맡아온 모니카 마이어가 지난 4월 갑작스레 사임한 후 아웃프런트 이사회는 후임자 선정 작업을 시작했다. 전국적인 물색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민 씨는 '임시' 타이틀을 달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이사회 측은 밝혔다.

민 씨는 "아웃프런트가 정식 리더십 변화에 대비하도록 돕는 게 내 역할"이라며 "스태프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조직력 강화, '아웃프런트'의 모금력을 '최강' 수준으로 만들어 온 전임자 마이어의 성공을 계속 이어가는 것, 본부 이전"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웃프런트는 자체 웹사이트에서 민 씨에 대해 "커뮤니티 커넥터, 비영리활동 전문가, 예술가, 사업가로 20년 가까이 권리옹호·지역사회개발·사회경제 정의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미니애폴리스 사우스고교를 졸업하고, 세인트폴의 맥캘레스터 칼리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사진관을 운영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대가 '성 소수자의 달'(Pride Month)인 6월에 성 소수자 인권 보호를 촉구하고,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하면서 LGBTQ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프런트 이사회 공동의장인 에린 메이 퀘이드는 "성소수자 운동이 성장과 도약의 시기를 맞았다. 이처럼 중요한 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조직을 이끌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1987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설립된 아웃프런트는 '동성결혼 합법화' 등 성소수자 권리 증진에 앞장서며 연간 예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소수자 권리옹호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고 스타트리뷴은 전했다. **▶**

“필리핀 세부 한인사회 코로나로 초토화… 살기 위해 안간힘”

조봉환 한인회장, “한인회, 15개월간 식료품 등 지원”

“한인사회가 초토화됐어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고, 관련 업종은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조봉환 필리핀 세부한인회장이 최근 연합 뉴스에 전한 현지의 상황이다.

세부는 필리핀의 제2의 도시이자 '동남아의 나폴리'로 불리는 관광 도시다. 코로나 이전 한 해 40만 명의 한국인이 찾았고,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세부 분관(총영사 엄원재)이 설치돼 있다.

조 회장은 “세부에 거주하던 3만여 명의 한인 가운데 2만명 정도가 코로나19 이후 귀국했고, 나머지 1만여 명이 힘겹게 살아 가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한인회가 어려운 한인들에게 지원하는 생필품 박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재개될 관광 사업에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이 다수 남아있지만, 일부는 귀국을 해도 갈 데가 없거나, 불법체류 기간이 길어져 다시 나올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부한인회는 세부 분관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한인들에게 생필품과 마스크 등을 지원해왔다. 모금과 후원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매월

500만원(1가구 10만원씩) 상당의 생필품과 방역용품을 지원했다. 재외동포재단과 세부 분관의 지원을 합쳐 지금까지 8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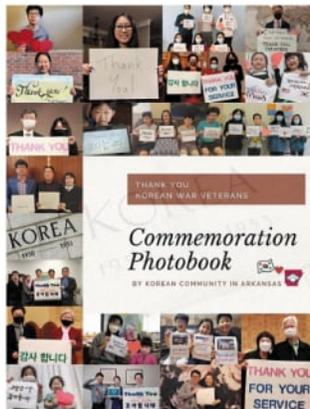
美 아칸소주 한인사회, 한국전 참전용사 사진앨범 제작

‘원 코리아재단’ 설립해 보은 행사 꾸준히 이어가

미국 아칸소주 한인식품협회(회장 이창헌)는 6월 25일 한국전 기념일을 맞아 미군 참전용사들에게 사진 앨범(기념 포토북)을 제작해 선사했다고 최근 밝혔다. 104쪽으로 구성된 앨범에는 아칸소주에 생존하는 60여 명의 참전용사 사진과 그들의 참전 기록, 그리고 참전 희생 용사 467명의 명단이 실려있다.

이 앨범에는 한국전쟁 발발의 역사적 기록과 함께 아칸소주 한인사회의 다양한 보은 행사, 6·25 당시 한국과 현재의 발전된 대한민국 사진들도 담았다. 참전용사 후손에게는 한국전쟁 참전 기록으로도 전해질 앨범을 이번 주 300부 인쇄해 기념일에 맞춰 배포하였다.

한국 보훈처의 제작 지원과 함께 휴스턴 한국 총영사관, 아칸소 보훈처, 현지 주 정부와 지자체, 한인사회 유관 단체, 독지가



미국 아칸소주 한인사회가 제작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 포토북’ 표지

등이 후원했다. 70여 개 회원사 조직체인 아칸소 한인식품협회는 ‘원 코리아재단’을 설립해 2017년부터 ‘지역사회에서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슬로건 아래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 아칸소에는 한인 5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아칸소 한인상공회장도 많은 이창헌 회장은 “한국 정부의 사도의 메달 전달식, 참전용사 후손을 위한 연례 장학행사, 초청 만찬회, 마스크와 손 세정제 전달 등 보은 행사를 펼쳐왔지만, 늘 부족한 마음이 남아 있었다”면서 “그들의 희생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은 앨범 제작을 했다”고 말했다.

아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올해 6월 25일을 ‘한국전쟁 기념일’로 선포했다.

캄보디아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법 알려주는 포스터

주요 병원 가이드 담아 당황 않고 즉각 대응 도움

캄보디아를 방문했거나 체류하면서 응급 환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지 한인선교사회 의뢰자문단은 그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포스터를 최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자문단은 캄보디아에 있는 한인들이 응급 대처 방법을 알고 싶어한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방법'이란 제목의 포스터를 만들었다. 의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질문에 'YES', 'NO'로 응답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응급 상황에 맞는 병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의식이 있는가', '보행 가능한가', '호흡, 맥박이 있는가' 등의 질문으로 증상에 맞는 병원을 추천하고 있다.

또 심장센터가 없는 병원, 정형외과가 없는 병원을 상세히 안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법 알려주는 포스터

내해 응급 상황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포스터에는 주요 병원 6곳의 안내 번호를 제시하고, 증상별로 치료 가능한 병원을 상세히 적어 놓았다. 자문단은 실사를 진행해 포스터를 만들었다.

캄보디아 한인회 관계자는 "외국에서 보는 것과 달리 이곳은 생각보다 치안이 안전하고 사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며 "다만 의료 응급상황 이 벌어졌을 때

한국처럼 가까운 종합병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막막했는데 포스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자문단 관계자는 "캄보디아 상황에 맞도록 직접 조사를 벌여 포스터를 제작했다"며 "유사시 응급상황에 처한 한인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얀마 한인들, 코로나 백신 접종길 열려... 중국측이 협조

한인봉제협회 요청 중국봉제협회가 수용... 이달 말 유료 접종

미얀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지 한인들이 중국측 협조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재미미얀마 한인회에 따르면 서원호 한인봉제협회장과 이병수 한인회장 등이 중국봉제협회측과 협의한 끝에 미얀마 내 한인들에게도 중국산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봉제협회측이 소속 공장에 근무하는 중국인 및 현지인들을 위한 백신 수입을 추진 중인 것을 전해 듣고, 서 회장이 미얀마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중국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종 백신은 중국산 시노백 또는 시노팜이다.

이병수 한인회장은 "1회 접종시 30달러(약 3만5천원), 2회



미얀마 군부가 백신 수입을 중단해 어려움을 겪던 한인들이 중국봉제협회의 도움으로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게됐다. 사진은 한인운영 봉제공장.

접종시 60달러(약 7만원)에 미얀마 내 한인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면서 "7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이달 말 미얀마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해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얀마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대다수는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지난달 중·하순 양공의 미얀마 컨벤션센터(MCC)에서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교민들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백신 접종 방안을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관 등에 문의했지만, 2월1일 국가비상사태 이후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금까지 해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옛 LA 흥사단 본부 철거 위기... 美한인들 사적지 지정 추진

“중국제 개발회사가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철거 신청”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에 있는 옛 흥사단 본부 건물이 철거 위기에 처했다.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민족운동단체로, LA에 있는 옛 본부는 1932년 흥사단 단원들이 자금을 모아 마련한 곳이다.

최근 흥사단에 따르면 이 본부 건물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중국계 개발회사는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려는 계획을 최근 LA 시정부에 제출했다.

흥사단미주위원회, LA한인회 등으로 구성된 '카탈리나 흥사단 단소 구입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LA시정부에 옛 본부 건물을 사적지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6월 23일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다.



LA에 흥사단 본부 건물은 1932년 흥사단 단원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마련했다.

추진위원회는 일단 개발회사와 건물 철거를 2개월가량 미루는 데 합의하고 LA 시의회에서 사적지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흥사단과 현지 한인 사회는 지난 2019년 이 건물이 한 차례 매물로 나왔을 때 매입하려 했으나 자금이 부족해 사들이지 못했다.

서울흥사단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나라 사랑과 열정이 고스란히 투영된 옛 흥사단 건물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흥사단 본부도 “사적지 등록을 위해 전국 회원, 시민들과 힘을 모아 추진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해외 독립운동의 훈이 담긴 건물 보존에 시민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도보로 만나는 한민족 역사’ 러 블라디 유적지 탐방로 구축

현지인·고려인 대상 첫 공식 체험행사... 역사적 연대성 제고

러시아 극동 연해주(州) 블라디보스토크 도심 내에 한민족의 역사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는 탐방코스가 마련됐다.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시기의 한인 관련 유적들이 많다. 한국인들이 연해주에 공식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864년이다. 1900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세계 최초의 한국어과가 개설되는 등 고려인들에게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이다.

6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블라디보스토크 도심에선 극동연방대의 한국어 관광가이드 양성 과정 수강생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보로 만나는 한민족 역사유적지 탐방로 체험 행사’가 열렸다.

탐방로는 한인 이주 150주년 기념 우호친선비, 극동 최대 항



‘도보로 만나는 한민족 역사유적지 탐방로 체험 행사’에서 현지인과 고려인들이 총영사관 관계자로부터 신한촌 기념비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토 박물관인 아르세니예프 발해 전시실, 세계 최초의 한국어과가 있었던 극동연방대 동양학부 옛 건물, 조명희 문학비, 이동휘·무명독립운동가 기념비, 신한촌 기념비로 구성됐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지난해 연해주 관광정보센터와 블라디보스토크시 당국은 한국 총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한민족과 관련된 유적지를 관광

코스로 묶는 탐방로를 구축했다. 이 탐방로는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어 관광 지도에 반영됐다. 이날 행사는 현지 홍보를 겸한 첫 공식 체험 행사였다고 총영사관은 강조했다.

고문희 총영사 대리는 “지난해 구축된 탐방로의 첫 공식 체험 행사로 양국의 역사적 연대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재미한국학교協, '제1회 코리안 스펠링 비' 개최

재미한국학교에 다니는 동포 2세들의 한국어 실력을 겨루는 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재미한국학교협 의회(NAKS)는 현지시간 7월 17일 온라인에서 '제1회 코리안 스펠링 비'를 개최했다. '영어 철자 맞추기 대회'인 스펠링 비는 뜻과 예문을 말해주면 단어를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어 대신 한국어를 맞추는 대회다. NAKS는 이 대회를 7월 15일부터 열린 '제39회 NAKS 창립 40년 기념 온라인 학술대회'의 마지막 행사로 기획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원장 박준성)이 주최하고, NAKS가 주관하며, 한국 교육부가 후원했다.



세계한국어교육자協, 온라인 한국역사 포럼 개최

세계한국어교육자협회(회장 심용휴)는 6월 26일 '제6회 세계 한국어 교육과 한국 역사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한국학 권위자인 마크 피터슨 미국 브리검영대 명예교수가 '한국 역사의 잘못된 것들: 민족주의, 식민사관, 그리고 새롭게 못 보는 일'을 주제로 발표했다. 하버드대 석·박사 출신인 그는 램피어 로스쿨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왜곡하는 논문을 발표하자 "피해자들이 어떻게 강제로 또는 속아서 위안부가 됐는지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러시아 모스크바 신임 한인회장에 박종권 씨

러시아 모스크바 한인회는 제10대 회장에 박종권(58) 겨례일보 대표가 당선됐다고 최근 밝혔다. 박 대표는 6월말 총회에서 선출됐고, 7월 1일부터 임기 2년을 시작했다. 충남 대전 출신인 그는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1991년 러시아로 유학을 하러 갔다가 정착했다. 북방저널 기자, 춘추사(지방신문연합) 특파원을 지냈고 현재 겨례일보 대표다. 박 신임 회장은 "그동안 한인회가 이뤄놓은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안 좋은 점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르헨 한국문화원서 '1세대 조각가' 김윤신 조각·회화전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은 6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조각가 김윤신(86)의 조각과 회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 '찰나: 지금 이 순간'이 열린다. 우리나라 1세대 여성 조각가인 김윤신은 1935년 원산에서 태어나 홍익대와 프랑스 파리국립미술학교에서 공부한 후 상명대 교수를 지내다 1983년 아르헨티나에 이민했다. 여행 중 만난 남미의 나무들에 매혹돼 정착을 결심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아르헨티나, 미국, 멕시코 등에서 총 43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지난 2018년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남미 첫 한국 작가 미술관인 '김윤신미술관'이 문을 열기도 했다.

이탈리아 한인 음악인들... 1년반만의 대면 연주회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개선되면서 재이탈리아 한인음악협회(협회장 신인철)는 6월 11일 저녁 로마 마한인교회에서 대면 콘서트 '예술가국산책-MALIA'를 개최했다. 대면 음악회는 2019년 12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이번 콘서트는 우리 귀에 익숙한 이탈리아, 프랑스, 영미권의 예술가곡들로 구성됐다. 신인철 협회장은 "이탈리아가 오페라에 치중해 있는 점을 고려해 청중들이 좀 더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가곡 중심의 연주회를 기획했다"며 "오랜만에 연주자들과 청중이 현장에서 교감하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스위스 한인, IOC 앞에서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항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자리한 스위스의 유학생과 교민들이 6월 18일 도쿄올림픽·패럴림픽 홈페이지 내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처럼 표시된 것과 관련해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로잔 IOC 본부 앞에서 "IOC는 올림픽이 일본의 정치적인 선전 무대로 변질하는 것을 보고도 계속 모른 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창올림픽 당시 IOC가 일본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남북 단일팀의 한반도기 속 독도는 빼라고 권고했으면서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에 일본 땅으로 그려진 독도는 왜 모른 척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인회 · 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oc@okt.or.kr)로 보내주세요

가나 한인 차세대 요람 '개교 40년' 전통의 한글학교

한민족 정체성 교육 집중, 200명 넘는 학생 배출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한글학교 가운데 하나인 가나 한글학교(교장 강승천)가 개교 40주년을 맞았다.

1981년 설립된 가나 한글학교는 6월 5일(현지시간) 오전 가나 수도 아크라 옆 항구도시 테마의 한인회관 소강당에서 개교 40주년 기념행사와 제20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동아프리카 케냐 한글학교도 서아프리카 가나와 같은 해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테마에 위치한 가나 한글학교에서 배출한 학생만 200명이 넘는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매주 토요일 한글공부와 한국 문화 등 한민족 정체성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과 미국 등에 있는 대학을 거쳐 세계 여러 나라에 진출했다고 한다.

최근 K-팝 등 한류 바람을 타고 가나 현지인들 사이에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오는 9월부터 현지인 대상 한글 교실도 열 계획이다. 현재 학생 수는 17명으로 이들은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마당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며 조화를 하고 있다.

강승천 교장은 "전에는 1절까지만 부르다가 아이들이 기왕에 4절까지 다 부르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 아이들이 애국가를 모두 외워 집에서도 동요처럼 부른다"고 답했다.

강 교장은 자신이 40년 한글학교 역사



6월 5일 서아프리카 가나 테마의 한인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가나 한글학교 졸업식 및 40주년 축하행사에 어린이 세 명이 상을 받고 차례로 줄을 서 있다.

에서 제5대 교장이고, 현재 교사는 여섯 명이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영 위원회도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외동포재단에서 연간 7천 달러(약 780만원) 정도 후원해 교사들의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중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면 중국 식당과 카지노를 차리고,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먼저 짓는다는 말이 있다"라며 "가나에 계셨던 한국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몇 안 되는 한국 아이들이나 한글 학교를 시작했다. 그 열정과 교육열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강 교장에 따르면, 가나 한글학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프코 수산회사 김복남 회장과 문현숙 초대 교장이 마음을 합해 시작됐다. 처음에는 제대로 된 학교 건물

이 없어서, 여러 곳의 건물들을 빌려서 교실로 사용했다. 현재는 7개의 단층 교실과 도서실, 교무실을 갖추고 있다.

이태열 가나 한인회장은 "축구도 할 수 있는 마당과 단독 건물로 아담하게 지어진 토요 한글 학교가 가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한인들의 자랑스러운 자랑이다"라고 말했다. 깨끗하고 에어컨 달린 교실에서 학년별로 공부하고 한국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한글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교육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정택 주가나 대사, 공무원 한국국제협력단 현지 소장 등이 참석해 지난 40년 동안 한글과 우리 문화, 역사를 가르쳐 학생들에게 한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준 전·현직 교사와 한인들을 격려했다. **장**

재외동포재단, 세계시민으로서의 한민족 공동체 발전 방안 제시

제주포럼서 김성곤 이사장, 썬디 류 워싱턴주 하원의원 주제발표

‘제16회 제주포럼’ 행사 중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시민으로서의 한민족 공동체’를 주제로 한 세션이 6월 26일 평화의 섬 제주도 해비치호텔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재단은 2017년 5월 세계한인 정치인포럼 참석자들이 제주포럼에 연계 참석한 이후 4년 만에 포럼에 참가했다. 포럼은 제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기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의 제주포럼’의 주제와 가치를 재외동포사회와 공감하기 위해서 열렸다.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가 세션 좌장을 맡았으며,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썬디 류 워싱턴주 하원의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주진오 상명대 교수, 유정길 녹색불교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참가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주제발표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기존의 경쟁 위주 물질주의 삶의 패턴에서 환경중심 경제, 부의 공정배분, 국가 간 불평등 해소 등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과 평화의 삶으로의 전환을 요청한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생·번영해야만 하는 생태적 문명의 ‘후천 개벽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곤 이사장은 한민족이 남한(5천2백만), 북한(2천6백만), 재외동포(750만) 세 그룹의 코리아인으로 나눠지고 흩어졌으나 이제 ‘원 코리아’(One Korea)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답보 상태인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 재외동포가 민족화해와 지역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아름답다는 ‘고려(高麗)이름을 갖고 있는 코리아는 유엔의 ‘지구시민’과 같은 개념인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갖고 있지만 세계 물질문명 충돌의 가장 큰 피해와 고난을 겪고 있다’며 “아파 본 사람이 치료자가 된다는 ‘선병자의’(先



재외동포재단은 6월 26일 제주도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1 제주포럼'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시민으로서의 한민족 공동체' 세션을 개최했다.

病者醫) 마음으로 세계인과 함께 정신문명을 창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미국에서 주제발표자로 참가한 썬디 류 워싱턴주 하원의원은 ‘세계시민으로서, 평화와 환경 보호를 향한 행동’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국은 평화와 번영에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기후변화 위기에 K-방역 성공 등 글로벌시대의 리더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의 차세대사업에 대해 감사와 평가를 하였으며, 세계 각지에서 혁신성을 평가받고 있는 한인들이 비영리·공익목적의 환경운동을 많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패널로 참가한 주진오 교수는 “재외동포 1세대들의 ‘혈연-언어-지역-공동인식’ 연결고리에서 차세대로 넘어갈수록 ‘언어와 지역’은 느슨해지고 결국 ‘혈연과 공동인식’만 남게 되므로 앞으로 한글교육 이외에 역사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구 사무총장은 문화인류학자의 관점에서 주제발표자들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를 당부하였다. 유정길 소장은 지속가능한 생태적 순환관계를 통해 남북관계, 미·중 갈등을 해소해야 하며 ‘녹색 한반도’를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했다.

세션 좌장을 맡은 라종일 석좌교수는 “한국이 과거에는 모델을 따라가면 되었는데, 이제는 세계시민으로서 스스로 모델이 된다는 의식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이번 제주포럼 세션 참여에 대해 “평화와 번영이라는 포럼 주제와 750만 재외동포를 위해 활동하는 우리 재외동포재단 목표와 가치가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느꼈다.” **창**

재외동포재단, 전세계 한글학교와 '찾동' 개최

재외동포재단은 6월 8일, 미국서부와 중남미 지역 한글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화상 간담회를 시행했다. 6월 1일에 열린 미국 동부·캐나다 한글학교 관계자들과의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에 이어 두 번째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미주한국학교연합회(KOSAA), 캐나다한국학

교총연합회, 중미카리브 한글학교협의회, 남미 한글학교협의회, 재멕시코한글학교협의회 등 한글학교 연합회 임원 및 한글학교 교장 등이 참석해 지역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동포 자녀를 위한 주말 한글학교 수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남미 지역 참석자들은 소규모 한글학교의 경우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토로하면서 지원과 배려를 요청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여러 난관 속에서도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교사 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재단은 6월 1일부터 한글학교 관계자와 '찾동' 화상 간담회를 열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과의 MOU 체결

재외동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재외동포 관련 자료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정보 및 자원의 공유와 연구를 위해 6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 홍보문화조사부 김봉섭 부장,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전시·디지털아카이브 실무추진단 송석원 단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병우 원장, 임치

균 부원장, 심재우 기획처장, 윤진영 한국학사전편찬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 관련 자료 연구 및 인적 교류, ▲자료 수집 및 보존 등 공동 노력, ▲디지털 정보자원 및 데이터베

이스 공유 및 시스템 연계에 대한 협력, ▲콘텐츠 활용 기관 홍보 강화를 위한 협력 등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단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6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외동포재단,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와 '찾동' 개최

재외동포재단은 6월 11일 미국 지역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KAGRO) 임원진과 비대면 화상 간담회인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 행사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KAGRO

김주한 회장(포틀랜드), 이승수 이사장(필라델피아), 이지니 사무총장(LA)을 비롯한 15명의 지역 협회장이 참석했다.

김주한 회장은 "한국식품은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생필품 매출이 2~3배로 늘었다. KAGRO 회원 2만명은 미국시장의 유통·도매상 업체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국내 한국제품의 미국 내 프랜차이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단은 6월 11일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와 '찾동' 화상 간담회를 열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한인무역협회 임원진과 '찾동' 개최

재외동포재단은 한인경제인과의 소통을 위해 6월 16일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임원진과 비대면 화상간담회

'찾동'(찾아가는 동포 재단)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진철 명예회장(미국 LA)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시아 지역의 7명 임원진이 참석했다.



재단은 6월 16일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찾동' 화상 간담회를 열었다.

서진형 명예회장(미국 뉴욕)은 "세계한상대회에서 K-방역상품과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K-식품을 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허순범 상임이사(미국 뉴욕)는 "IT·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구인 수요가 있으니 국내 청년들을 재단의 한상 청년인턴십 사업으로 연결해주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올해 세계한상대회에서는 한상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재외동포재단, 영비즈니스 리더스네트워크와 '찾동' 개최

재외동포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동포사회 현황을 공유하고 세계한상대회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차세대 한인 경제인 단체인 영비즈니스리더스네트



재단은 6월 25일 차세대 한인 경제인 단체인 YBLN과 '찾동'을 개최했다.

워크(YBLN) 회장단 및 역대 회장들과 6월 24일 화상 간담회인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을 개최했다

이주한 회장(인도네시아)을 비롯해 노형우 부회장(국내), 최분도 5대 회장(베트남) 등 8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세계한상대회 발전 방안, 코로나 19 관련 비즈니스 애로사항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세계한상대회 프로그램을 활용한 세대간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창**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나일강 편지 1, 2

황영이 / 바른북스

이집트에서 사는 카이로 한국학교 어린이들과 선생님의 일상을 담은 시집이 발간되었다. 이집트 생활에서 만났던 일상의 이야기를 시라는 장르를 통해 풀어냈다. 카이로 한국학교, 피라미드 등 지역의 특성을 찾을 수 있는 소재부터 달팽이, 기린 등 한국의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시적이야기를 펴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눈으로 그려진 이국 생활의 경험과 정체성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



Fearless(피어리스)

한국 최초로 써 내려가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유나양의 정공법 유니영 / 수오서재

할리우드 스타들과 세계 상위 1%에게 사랑받는 하이엔드 브랜드 "YUNA YANG"의 패션 디자이너 유나양의 에세이집이 발간되었다. 자신의 독창적 노력으로 패션의 성지 미국에서 최초의 성과들을 만들어 냈다. 그녀는 한국인으로서 패션지 최초로 커버스토리를 장식하고, 뉴욕 'Met Gala'에 참여한 최초의 한인 디자이너로 이름을 올렸다. 오늘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인종 차별과 인종 차별은 물론 자신의 한계도 극복하며, 진실을 믿는 마음의 힘을 믿어 왔다고 한다. '가슴 뛰는 설렘'을 따라 브랜드를 키워온 그녀의 삶 이야기를 만나보자.



고발과 연루

한국계 미국 소설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이석구 / 역락

한국계 미국 소설에서는 아시아계 이민자, 코리아타운의 삶, 입양 동포의 삶, 하와이 지역주의 등 다양한 주제가 나타난다. 또한 한국계 미국소설이 다루는 대상은 떠난 모국과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국의 배경을 모두 포함한다. 다양한 주제가 나타나는 경계 문학이 거주국 주류 집단의 인종주의와 영미권의 다문화적 양상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서가 발간되었다. 이 책은 이민자가 겪었던 차별을 비판하는 담론을 담으면서, 차별의 문제가 완전한 해결이 되는지, 주류 집단이 허용하는 수준의 타협으로 끝나는지를 분석한다. 이산 문학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실제 작품에서는 어떤 문학적 반영으로 나타났는지 확인해보자.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서포터즈 'WeKO 3기' 모집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글로벌 서포터즈 '위코'(WeKO·We are Korea) 3기 120명을 모집한다. 대학(원)생 부문 총 81명(27팀, 3명씩 개인·팀 단위 지원), 일반 부문(고등학생 포함) 총 21명(7팀), 글로벌 부문 총 18명(개인 지원)이다.



만 16세 이상이면 국적, 성별,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koicaweko.com)에서 팀별 혹은 개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개발협력 분야 이해도가 높고, 해외 봉사를 비롯해 기자단·서포터즈 등 대외활동을 했거나 소셜 미디어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이를 우대한다. 8월 5일 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을 열고, 4개월간 활동한다.

WeKO는 국제개발 협력의 여러 사업을 직접 체험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행동과 의미를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해외 한국학 진흥, 한국 관련 해외 정책연구·인적 교류 강화, 문화 교류 협력 등 한국과 외국 간 교류사업을 펼쳤거나 공공외교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워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위상을 높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상자에게는 2만 달러 또는 2천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주며 해외 거주자의 경우 동반 1인 포함 1주일 방한 항공권과 숙식을 제공한다.

재단은 2008년부터 이 상을 제정해 격년으로 포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마르티나 도이힐러 영국 런던대 명예교수, 존 던컨 미국 UCLA 한국학연구소장, 손호민 미국 하와이대 동아시아언어문학부 교수,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하르트무트 코쾅 독일 한독포럼 공동의장, 이경희 KOREANA 편집장, 니콜라이 크로파체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총장 등이 수상했다.

추천 마감은 7월 23일이며, 심사를 거쳐 8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중 시상식을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재단 홈페이지(www.kf.or.kr)를 참고하면 된다.

세종학당, 37개국 재외공관·한글학교에 한국어 교재 보급

세종학당재단은 재외공관과 한글학교에 5천여 권의 한국어 교재를 보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지아·벨라루스 등 유럽과 아시아·미주 등 37개국의 대사관과 한글학교 등 한국어를 교육



세종학당재단은 최근 37개국 공관과 한글학교에 한국어 학습 교재 5천여 권을 배포했다.

하는 59개소에 사이버 한국어 초급·중급, 세종한국어 입문, 세종한국어 회화·한국 문화 교재 9종을 5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사를 위한 교재 지침서와 학습활동과 연계한 교육 콘텐츠도 함께 전달한다. 하반기에는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교재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세종학당과 재외공관 외에도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교재를 요청해 오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KF, 공공외교 공훈자 포상 '국제교류재단상' 공모



국제교류재단상 역대 수상자 좌측부터 마르티나 도이힐, 하르트무트 코쾅, 니콜라이 크로파체프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해외에서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고 이해 증진을 위해 기여한 개인·단체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국제교류재단상' 최종 선정 대상자는 1명 또는 1개 기관(단체)이다.

AP 한국어 등재를 위해, 모두 함께합시다!

지금 재미동포들은 지난 1월, 칼리지 보드에서 갑작스레 선포한 표준시험의 일종인 SAT II 학과시험을 전면적으로 폐쇄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재미동포의 삶은 차세대 교육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세대 한국계 미국인이 정체성을 갖고 주류사회로 진출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살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표준시험은 링컨 대통령이 주립 대학을 세웠던 그 뜻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1860년대에 남북전쟁으로 인해 공부할 기회를 잃은 청년들을 위해서 국유지를 각 주에 무상 분배해 주립 대학을 세우게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학교육은 빈부 차이가 없이 더욱더 공평한 대학입학 과정을 마련하는 뜻에서 표준시험을 만들었지요. SAT I은 95년 전인 1926년에, SAT II 학과목 테스트는 그보다 9년 후인 1937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SAT란 Scholastic Aptitude Test의 약자로 수능시험입니다. SAT I은 수학과 영어 평가 수능시험이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대학진학 때 필수라고 보면 됩니다. SAT II는 특정 학과목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5개(영어, 수학, 역사 및 사회학, 과학, 제2외국어) 과목별 시험입니다. 한국어가 제2외국어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인 디아스포라와 그 자녀들에게는 뜻 깊은 시험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일본어 중국어보다 늦은 1994년, 그러니까 SAT II가 제정되고 반세기도 더 지난 후에 채택된 것입니다. 첫 시험이 1997년에 치러졌습니다.

미국 대학입학 과정에서 SAT I, II 이외에도 AP(Advanced Placement)라는 고급교과 과정과 시험이 있습니다. 고등



류 모니카

M.D 중앙방사선학 전문의,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학교에서 취득하는 고급 교과과정으로, 대학과정 인증과목입니다. AP 학과목 시험은 5점 만점으로 3점 이상을 취득하면 많은 대학에서 대학과정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가중 평균점수를 주기 때문에 평균학점이 올라가고, 내신 등급이 따라서 올라가는 차별화된 시스템이지요. AP는 38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일본어, 중국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SAT II 학과목 시험을 전격 폐지되며 SAT II 한국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 차세대들에게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비 혈통 차세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AP 한국어입니다.

AP 한국어 설립은 교육기관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은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가, 주미 한국 단체들, 주미대한민국 주재원, 한국계 미국인 상원 하원의원들, 시의원들 그리고 12개의 단체들과 함께 협동하여 AP 한국어 설립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단계로 AP 한국어 설립의 필요성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비혈통 교육감, 교육이사들도 함께 했습니다. 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약 2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한국과 외국에 계시는 모든 한국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들의 숙원인 AP 한국어 설립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supportapkorean.org)에서 서명해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서명운동은 이메일과 성함만 쓰시면 됩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1 세계한인 청소년 더 위대한 도전’ 경연대회 공모



재외동포재단은 7월 31일까지 '2021 세계 한인 청소년 더 위대한 도전' 문화 경연 대회에 참가할 지구촌 한인 청소년을 공모한다. '글로벌 코리아! 문화로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에세이, 영상, 퍼포먼스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재단이 후원하고 MBC와 YMCA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는 한인 청소년이 거주국에서 훌륭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모국과 재외동포 간 교류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한국이나 해외에 사는 만 13~29세 한인 청소년으로, 출품작과 작품 설명 등을 작성해 이메일(21gckorea@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에세이와 영상, 퍼포먼스 세 부분으로 나뉘 ▲경계와 차별을 극복하는 방법 ▲우리 가족의 이민 이야기 ▲내가 상상하는 세계 평화 ▲나의 꿈, 나의 미래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 참가자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창의력을 담아서 만들어진 응모작품들은 웹페이지에 게시된다. 참가자들은 응모·관람 그리고 심사 참여를 통해 대회의 모든 일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예선과 결선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최종 수상자들에게는 총 4천6백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최종 발표는 10월 5일이고, 문의는 운영 사무국(21gckorea@gmail.com).

6월의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김성곤 이사장

- 6월 8일: 미국 서부, 중남미지역 한글학교 '찾동' 참석
- 6월 11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업무협약식 참석
- 6월 16일: 한상 월드옥타 '찾동' 참석
- 6월 17일: 한국이민사박물관 박진영 관장 면담
- 6월 18일: 재단 자문위원회 만찬
- 6월 22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면담
- 6월 24일: 한상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 '찾동' 참석
- 6월 25일: 제주포럼 개최식 참석
- 6월 26일: 제주포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시민으로서의 한민족 공동체' 세션 참석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